

“젊은층 공감 뿌듯...시즌2 욕심나요”

금메달리스트 출신 문체부 장관역 정치판 이야기 현실적으로 담아내 터닝 포인트된 윤성호 감독 재회 발성장애 딛고 연기 해온 원동력 '킬힐' 등 여성서사 새 드라마 준비

“오늘은 '이렇게 된 이상' 대표로 나온 거예요.”

배우 김성령(54)이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선언하듯 말했다.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웨이브로 공개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끊임없이 자랑하며 “나 말고 동료들에 관해 많이 물어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바빴다. 극중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의 모습은 단숨에 연기만이 아닌 듯했다.

정작 스스로는 “캐릭터와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있는 듯, 없는 듯하는 선배”가 되고 싶었다. 그는 “나와 경력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기 쉽다”면서 “후배들이 편하게 연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시즌2로!”

드라마는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국회의원이 좌충우돌하며 겨우 문체부를 이끄는 와중에 정치평론가인 남편(백현진)까지 괴한에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온라인상에서는 정치판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담았다는 반응을 자아내고 있다.

“원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동료들에 관해서도 질문해주세요.” 이제 중견이 된 김성령은 “후배들이 편하게 연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선배로서 권위를 내려놓았다. 가벼워진 대신 진한 정치풍자로 새로운 열기를 가고 있다. 사진제공 | 웨이브

“이렇게 된 이상 동료들에 관해서도 질문해주세요.” 이제 중견이 된 김성령은 “후배들이 편하게 연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선배로서 권위를 내려놓았다. 가벼워진 대신 진한 정치풍자로 새로운 열기를 가고 있다. 사진제공 | 웨이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세계 자랑스러운 드라마예요. 출연진 모두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있고, 그게 잘 살았죠. 저도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나는 순간이에요.”

있죠.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 입성’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하!”

●“내게는 ‘자랑스러운’ 드라마”

김성령에게 연출자 윤성호 PD는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함께 한 주역이다. 2012년 MBC에브리원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로 처음 만났다.

“모든 게 고갈되어 간다고 느끼던 때 윤 PD를 만났고, 처음으로 자유롭게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때 깨달음이 2012년 SBS ‘추적자, 더 체이서’, 2013년 ‘야왕’, 2016년 ‘미세스캅’ 등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제 ‘연기 변신’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10년 전 진단 받은 연축성발성장애를 딛고 지금껏 연기를 해온 원동력이기도 하다. 후두근육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축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질병과 싸운 그는 “연기를 그만두자는 생각을 왜 안 했겠느냐”고 돌아섰다.

“소리를 내지르는 게 잘 안 돼요.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가며 여기까지 왔네요. 요즘도 소리치는 장면은 몇 번이나 다시 찍어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 발성 관련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노력 끝에 이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는 배우로 자리 잡았다. 개성을 살려 내면 tvN ‘킬힐’ 등 여성서사 드라마를 연달아 내놓는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세계 자랑스러운 드라마예요. 출연진 모두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있고, 그게 잘 살았죠. 저도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나는 순간이에요.”

연예뉴스 HOT 5

독립 예술영화 위해 뭉친 대세 배우들

감염병 확산세로 위기에 처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배우들이 나섰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의 양익준, tvN ‘갯마을 차차차’의 공민정, 영화 ‘박화영’의 이환, 영화 ‘들꽃’의 정하담이 12월4일 오후 1시 ‘극장전: Save Our Cinema(세이브 아워 시네마)-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연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존립 가치를 되새기는 무대로, 이들은 관객 사연을 낭독하고 영화관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한다. 또 ‘만추’의 김태웅·‘우리집’의 윤가는 ‘남매의 여름방학’을 감독 등도 창작자로서 영화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나선다. 현재 송강호, 강동원, 배우나 주연 ‘브로커’를 촬영 중인 그는 독립·예술영화와 전용관의 가치를 설명한다.

MBC FM4U DJ들 자리 맞바꿔 진행



배철수

MBC FM4U의 진행자들이 하루 동안 다른 DJ의 프로그래밍을 맡는다. MBC가 2003년부터 이어온 ‘패밀리데이’로, 30일 하루 라디오 진행자들이 서로 프로그램을 바꿔 진행하는 이벤트이다. 올해에는 ‘만나면 좋은 간부’라는 콘셉트를 내세운다. ‘음악캠프’의 배철수는 오전 9시 정지영 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오늘 아침’을 맡는다. 또 정 전 아나운서는 뮤직의 ‘두시의 데이트’를, 뮤지는 오후 8시 ‘꿈꾸는 라디오’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꿈꾸는 라디오’의 전효성은 오전 11시 ‘골든디스크’를 진행하는 김현철이 밤 10시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로 건너간 빈 자리를 채운다. 이날 ‘패밀리데이’는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4인조 활동 보장” 빅뱅 팬 트럭 시위

그들 빅뱅의 팬들이 트럭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29일 오후 빅뱅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서울 합정동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며 “빅뱅의 4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4인조 빅뱅을 서포트하고 팬덤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클럽버닝썬’ 사건 이후 승리가 탈퇴한 이후 4인 멤버 체제로 그룹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라는 요구이다.

성유리 ‘유기동물 산타 프로젝트’ 동참



성유리

연기자 성유리가 유기견을 위한 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성유리는 ‘유기동물 산타 프로젝트’에 동참해 자신의 반려견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한다. 그는 반려견 ‘뿌잉’의 모습을 직접 그려 맨투맨 티셔츠에 새겨 이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유기동물의 겨울 나기를 위한 사료와 병든 유기견 치료 등을 위해 기탁할 예정이다. 성유리의 티셔츠는 12월 25일까지 포털 네이버를 통해 판매된다. 성유리는 그동안 동물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승기·장도연 등 ‘SBS 연기대상’ 진행

가수 겸 연기자 이승기와 함께 개그우먼 장도연, 모델 출신 한혜진이 연말 대형 무대에 나선다. 이들은 12월 18일 방송하는 ‘2021 SBS 연기대상’을 진행한다. 이승기는 ‘집사부일체’, 장도연은 ‘워맨스가 필요해’, 한혜진은 ‘골 때리는 그녀들’ 등 SBS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시선 강탈 액션... ‘썸 언니’ 전성시대

‘지옥’ 김현주 ‘마이 네임’ 한소희 데뷔 첫 액션 연기 완벽하게 소화 ‘유체이탈자’ 임지연도 눈길 끌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들이 현란한 몸놀림으로 거칠고도 현란한 액션 연기를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연기자들에게는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계기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와 관객에게는 색다른 이야기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무대로 받아들여진다.

19일 전 세계 190개국에서 공개돼 많은 시청자의 시선을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의 김현주를 비롯해 ‘마이 네임’의 한소희, 영화 ‘유체이탈자’의 임지연 등이 그 주역이다. 이들은 여성 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의 주인공 한소희. 거친 맨몸 액션 연기로 복수의 이야기를 이끌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릭터가 주도하는 작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액션 연기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독특히 해냄으로써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주는 ‘지옥’에서 초자연적 현상으로

공포에 휩싸인 세상에 맞서는 변호사 역할을 연기하며 재빠른 몸놀림을 구사해야 하는 액션 연기에 도전했다. ‘마이 네임’의 한소희는 억울하게 숨겨진 아버지를 대신해 복수에 나선다는 캐릭터를 맡아 현란한 맨몸 액션을 선보였다. 영화 ‘유체이탈자’의 임지연도 기억을 잃고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나는 한 남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서는 이야기 속에서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로 등장한다. 강도 높은 액션 장면을 소화해내며 관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들은 모두 데뷔 이후 처음으로 액션 연기에 도전해 더욱 눈길을 끈다. 액션 연기 훈련은 기본이었다. 김현주는 “본격적인 액션 연기는 처음이어서 걱정과 설렘이 공존했다”면서 “세

심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마이 네임’의 한소희는 “3~4개월 액션스쿨에 다니며 훈련을 했다”면서 “몸무게를 10kg가량 늘려 몸놀림을 가볍게 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노력으로 연기자들이 성취한 것은 캐릭터 연기의 만족감이면서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안기는 쾌감이다. 임지연은 “과연 액션 연기를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면서도 “막상 해보니 너무 재밌었다. 하길 잘했다 싶다”고 돌아섰다.



이승기, 김훈, 윤나무, 백현진

부수를 띄웠다. 윤나무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송혜교의 동창인 박효주 남편이다. 아내가 횡격막에 걸린 것도 모른 채 부하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는 회사로원으로 시청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덕분에 2018년 SBS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 ‘갑질’하는 재벌 3세를 연기한 장면도 새삼 조명되고 있다. 백현진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해피니스’의 최고 악역이

다. 경찰 한효주·박형식을 번번이 위기에 빠뜨리는 의사이다. 지난해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막말’, SBS ‘모범택시’ 등에서도 악덕 상사로 출연했다. 스스로 “나쁜 아저씨 전문배우”라 가리킬 만큼 악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2인조 록밴드 어어밴드의 멤버이자 수차례 개인전을 연 미술작가로도 활동해온 이력으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주말 안방극장 달구는 분노 유발자들

‘악역’ 이가섭·강훈·윤나무·백현진 치열한 두뇌싸움으로 몰입도 높여 시청률 끌어올리며 신스틸러 부상

최근 한껏 뜨거워진 주말 안방극장의 경쟁 열기에 힘입어 새롭게 이름을 알리는 연기자들이 있다. tvN ‘지리산’의 이가섭, MBC ‘웃소매 붉은 끝동’의 강훈,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의 윤나무, tvN ‘해피니스’의 백현진 등이다. 저마다 주인공과 대립하며 이야기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분노 유발’ 캐릭터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지리산’의 이가섭은 지리산국립공원 레인저 전지현과 주지훈이 연쇄살인범으로

의심하는 자원보전과 직원이다. 전지현의 조력자로 비쳤지만 최근 의문스러운 모습으로 시청자의 의심까지 이끌어내면서 반전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강훈은 ‘웃소매 붉은 끝동’에서 이준호의 측근인 검사를 연기하면서 궁녀 이세영과 대립한다. 이준호를 이용해 세력을 불리려는 야망을 드러내면서 일찌감치 악역의 위치를 다졌다.

이들은 각각 7%대(이하 닐슨코리아)와 9%대 시청률의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시청자의 분노장을 받았다. 이가섭과 강훈은 영화 조단역으로 10여년간 연기해오다 각각 지난해 tvN ‘비밀의 숲2’와 2018년 SBS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으로 뒤늦게 안방극장에 발을 들였다.

윤나무와 백현진은 알미운 캐릭터로 승